

개발도상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료사업**

조 기 성*

I. 서언: 의료사업 추진 동기

나는 의사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며 지난 38년간 외교일선에서 재직한 한 직업 외교관이다. 의사가 아닌 내가 의료사업을 결심한 동기는 한국전쟁 중 받은 민족의 수난과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개발도상국 국민의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인류를 빈곤과 질병에서 구제해 주어야겠다는 이상주의 사상 때문에 이 어려운 의료사업을 시작했다.

인간은 출생의 시기와 장소에 따라 선진국 국민으로 문명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후진국 국민으로 평생 고통 속에서 살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사회의 실존 조건이다. 개발도상국에 자선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구촌벽촌을 방문해보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사람이면서도 선진국의 애완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인간의 실존 조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내가 설립한 평화의료재단은 그간 자선병원을 Latin America의 Maya, Inca indian촌, 아프리카의 Amhara, Swazi, Sukim족 도시, 아세아의 Java, Tetum족 도시와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병원을 건립했다. 왜냐하면 이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류들은 21세기 인류가 아니고 태고시대의 인류들로서 근대문명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관계는 독일의 철학자 Heidegger가 정의한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료사업을 시작했다.

지구촌의 토착인 촌락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많은 인명이 사망하며 또 이 질병이 만연해 다른 대륙으로 확산 전염되면 세계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 재단법인 평화의료재단 총재, 전 주아르헨티나대사

** 이화여자대학교가 2009. 11. 2 주최한 “2009년 김옥길 특강: 다문화 시대의 글로벌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 제하의 강연(요지) 내용임.

Ⅱ. 열악한 세계보건 상황

중세기에는 흑사병으로 인류가 수난을 당했고 2009년 세계는 신종인플루엔자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심각하고 절실한 질병은 HIV/AIDS이다.

아프리카 인구 7억 5천만 명 중 30%인 2억 5천만 명은 에이즈 환자이며 이 세기의 질병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만연해 아세아, 유럽, 미주대륙으로 확산 감염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하에서 개발국과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은 무서운 질병에서 인류를 구제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미온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Ⅲ. 의료사업 개시

내가 의료사업을 구상한 것은 한국 전쟁 후 의료시설이 없어 우리민족이 수난을 받고 있을시 우리를 구제해준 선진국들과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의료 원조를 목격하고, 나는 젊은 시절에 의료사역을 미래의 봉사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후 1961년 외교관이 되고 1988년 대사가 되어 개발도상국에 자선병원 건립을 시도했으나 당시 정부는 재원이 없어 병원사업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3년 내란중인 Peru에 대사로 부임해서 페루의 빈민촌과 게릴라 준동지역에 두 개의 자선병원을 건립

했는데, 이 병원이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한 첫 번째, 두 번째 병원이 되었다. 그리고 1999년 외무부를 사임한 후 평화의료재단을 친지들과 함께 설립, 2002년 Guatemala 인디안촌 Chamelco에 제3병원을 건립하고, 2003년에는 Ethiopia의 Bahir Dar에 제4병원을 건립했는데, 이 Ethiopia병원은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에 건립한 첫 병원이 되었다.

그 후 재단은 계속 자선병원을 건립 지금까지 재단은 아세아에 5개 병원, 라틴아메리카에 4개 병원, 아프리카에 4개 병원 총 13개 병원을 건립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년 1, 2개의 병원을 건립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병원을 건립해 나간다면 재단이 건립한 병원은 가까운 장래에 연 100만 명의 가난하고 병든 인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병원건립 방식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의료 원조를 받을 때 선진국이 병원을 건립해 주고 의료기기, 집기도 기증해 주고, 의료진을 보내 운영까지 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진국은 의사, 의약품이 없고 병원을 운영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선진국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1993년 페루에 첫 병원을 건립할시 선진국이 후진국에 의료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을 조사 연구한 결과 선진국도 개도국에 의료원조 시 병원과 설비는 건립 기증하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재단은 병원 건립 조건을 명시한 고유한 약정서(MOU)를 작성, 이에 따라 병원을 건립, 기증하고 있다.

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1) 개발도상국은 준수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약속해야 한다.

가. 개도국은 병원건립 부지로 3,000m²를 공여하고 전기와 수도관을 대지 경계까지 부설 하고 간단한 담을 설치해야 한다. 재단이 병원건립 부지로 3,000m²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병원의 확장에 대비해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나. 개도국은 병원을 인수 후 의사 2명, 간호사 2명, 고용원 3명을 임명, 병원을 운영한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다. 의료기기, 집기, 약 통관에 면세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2) 이상 조건이 충족되면 평화의료재단은

가. 병원을 건립하며 규모는 220m²(12진료실), 270m²(15진료실), 350m²(24진료실) 3개 병원 설계 중 병원 건립도시의 인구와 의료진 인원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병원을 건립해주고

나. 의료기기 12종(수술대, 심전도, 혈당측정기, 이비인후과 기기, 현미경, 진찰대, 영아요람 등)을 기증하고

다. 병원 집기를 기증 비치해야 한다.

라. 그리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원 봉사 의사 및 의약품을 기증한다.

그리고 병원이 완공되면 병원현판과

기금 기탁자의 기념현판을 제작 부착 후 병원을 개도국에 인도한다. 병원 명 현판에는 재단은 한민족을 상징하는 “HAN”자를 색인해 이 병원이 한국인이 건립한 병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V. 맺는말: 의료사업의 목적

의료사업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들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자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총생산의 1%를 후진국에 원조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선진국들은 군사원조, 외국의 고유한 문화유산 발굴 보존비, 수백 개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외원조를 하고 있지만 규모는 미진하다. 이러한 국제·국내사정을 감안, 재단은 단시일에 개발도상국에 많은 자선병원을 건립해 우리 손으로 연 100만, 200만 명의 가난하고 병든 인류를 구제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한 국민들이 지구촌에 많은 자선 병원을 건립해 인도적인 구호활동을 펼쳐 나가노라면 우리나라는 위대한 도덕국가로 승화될 것이며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으로 추앙을 받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개발도상국도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면서 좋은 이웃으로서 우리나라와 최혜 선린관계로 발전하리라 믿는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생존 조건은 부강한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지만 인접한 국가들이 빈곤과 질병으

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국제관계가 건전하고 평화로운 관계라고 정의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보살피는 인도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발도상국에 자선 병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류가 발원한 대륙이면서도 태고시대의 대륙으로 낙후해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최우선적으로 많은 병원을 짓고 HIV/AIDS 퇴치를 위한 의과 대학과 제약회사 설립을 지원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소생시키는 인도주의 구제 활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하기를 여망한다.

평화의료재단은 조그마한 민간 법인이지만 재단이 목표한 많은 병원 설립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백만 인류를 구제 하노라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새로 정립된 국가위상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글로벌 평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데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큰 역할을 하리라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 선린관계에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인류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있는 도덕국가 한국이 통일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기를 염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의료재단은 현재 나와 뜻과 이상을 같이한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그마한 재단이다. 그러나 평화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에 자선병원을 건립하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재단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화의료재단 총재, 이사, 임원으로 참여해 재단의 의료사업을 승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외교**